

실직노숙자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희망에 관한 연구

김 현 미* · 최 연 희*

I. 서 론

전세계적으로 20세기 말부터 지역사회의 주된 낙인의 표적이 되고 있는 대상은 노숙자와 에이즈 환자라고 일컬어 질 만큼, 노숙자들은 사회의 변두리 집단으로 밀려나 있다(Wright, 2000).

국내의 경우에는 1997년 말 외환 위기 이후 대량 실업 사태가 초래되면서, 노숙자 문제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도 부랑인이라는 이름으로 노숙자들이 존재했으나, 구제 금융체제 이후 발생한 노숙자들은, 노숙을 시작한 동기가 대부분 해고나 부도 등의 경제적 이유 때문이며, 노숙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일할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습 부랑자들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Choi, 2000).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직노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노숙자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여 정확한 정의 내리기가 어려우나, Bachrach(1992)에 의하면, 사용할 자원이 빈약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특정한 물리적인 거주지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미국의 노숙자 지원 법령인 Stewart B. Mckinney법에서는 노숙자를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 시설이 없이 임시보호시설이나 길거리, 공원, 차안이나 버려진 건물과 같은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공공이나 사설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일컫는다(United States Congress,

1987). 즉, 노숙자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해 가정을 떠나 쉼터나 수용 시설에서 지내는 사람, 상식적으로 주거 공간이라고 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기거하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Ahn, 1999).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거리 노숙 및 쉼터 거주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노숙자들이 다양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 장애를 나타냄을 보고하고 있다. 먼저, 신체적 문제로는 영양실조, 높은 감염의 위험성, 알콜 남용 등이 있으며, 심리적 문제로는 자아정체감의 상실, 자아존중감의 저하, 우울, 절망감, 희망의 상실, 자기효능의 손상, 학습된 무기력, 의욕 상실, 수치심과 죄책감 등이 있다. 또 심한 경우, 정신분열병, 정동장애, 불안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회적 문제로는 가족해체, 사회적 관계망 상실과 고립, 사회적 의무와 역할 수행의 포기, 사회 범죄율의 증가를 들고 있다(Hertzberg, 1992; Sumerin, 1995; Tollett & Thomas, 1995; Flynn, 1997; Lam & Rosenheck, 1998).

한편, 국내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한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1998)과 Kyungi-do Support Center for the Homeless(2000)의 연구 결과에서 이들이 호홉기 질환

* 경산대학교 간호학부

과 피부 질환, 위궤양, 관절염 등의 다양한 신체 질환과 자아존중감 저하, 우울, 절망감, 불안, 적대감, 삶의 목적 상실, 사회적 지지의 상실 등의 심리적 문제,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 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Ahn(1999)은 부산지역의 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숙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짐을 기술하였고, Jo(2001)는 부산지역의 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울과 불안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노숙자들은 다양한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며, 특히 노숙이 만성화 됨에 따라 보다 높은 정신질환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간호실무자들의 적극적인 간호 중재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숙 생활은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는 생활로서, 노숙자들은 누구보다도 인간애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므로, 앞으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간호학에서도 시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간호학에서는, Yun(2000)의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에 근거한 집없는(homeless) 여성의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와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노숙자의 자기효능, 자아존중감, 우울과 희망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한 Kim(2000)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노숙이 장기화되면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심리적 특성들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특히 구체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실직노숙자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한 연구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노숙 생활의 만성화에 따른 실직노숙자의 심리적 특성 중 먼저, 자아존중감과 우울, 희망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들과 일반적 특성간의 관계 및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실직노숙자들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S시의 2개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실직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기관의 협조를 얻어 2회에 걸쳐 총 23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1차 자료 수집 기간은 2000년 4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였고, 2차 자료 수집 기간은 2001년 3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였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에의 참여를 수락한 대상자 중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로서, 대상자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차 자료 수집에 참여한 대상자는 2차 자료 수집 시 제외하였다. 자료수집 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는 집단 모임을 통해 자의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개인의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다. 회수한 총 230부 중 불완전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218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Rosenberg(1973)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Jeon(197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시킨 것으로, 긍정형과 부정형이 혼합되어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도구 개발 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 이었다.

2) 우 울

Beck(1967)이 개발한 우울 척도를 Han, Yeom, Shin, Kim, Yun과 Jeong(1986)이 한국판으로 표준화시킨 것으로,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연구도구 개발 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이었다.

3) 회 망

Miller와 Powers(1985)의 희망 척도를 Lee(1992)가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자신과 타인 및 생에 대한 만족도를 다루는 내용이 22문항, 희망의 위협요소를 회피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12문항,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다루는 내용이 6문항으로 총 40문항이며, 긍정형, 부정형이 혼합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도구 개발 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5$ 이었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각 변수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와의 관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Duncan test로 사후 검정을 하였다.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별로는 40-49세가 43.1%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가 35.8%, 50-59세가 21.1%이었다.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66.1%이었고,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56.9%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별로는 이혼과 사별이 41.3%, 미혼이 36.7%이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2.0%였다. 월수입은 50만원 이하가 68.8%를 차지하였고, 거리 노숙 경험은 있는 경우가 56.9%, 쉼터 거주 기간은 13개월 이상이 61.5%였다. 가족과의 연락은 하는 경우가 72.5%이었다.

이는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한국 실직노숙자의 현황을 파악한 Lee(1998)의 연구와 Kyungi-do Support Center for the Homeless(2000)에서, 실직노숙자의 연령분포에서 30-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거나 고졸 이하가 대부분이고, 결혼 상태별로는 미혼이거나 이혼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대상자들 중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연구자들이 자료를 수집한 노숙자 쉼터들이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쉼터 거주 기간이 13개월 이상인 경우가 61.5%를 차지한 것은 정부에서 정한 입주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1년이나 연장이 가능하므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주거할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계속 쉼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Kyungi-do Support Center for the Homeless(2000), Son(2000) 등의 연구에서와 달리, 가족과 연락하는 경우가 72.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Kim, H. S.(1999)의 보고에서와 같이,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의 방향을 가정복귀, 지역사회 복귀로 잡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 = 218)	
Characteristics	N(%)
Age	
30-39	78(35.8)
40-49	94(43.1)
50-59	46(21.1)
Religion	
Yes	144(66.1)
No	74(33.9)
Education level	
Below Middle school	46(21.1)
High school	124(56.9)
College and above	48(22.0)
Marital status	
Married or Partnered	48(22.0)
Single	80(36.7)
Divorced, Widower	90(41.3)
Monthly Income(ten thousand won)	
≤ 50	150(68.8)
51 - 100	68(31.2)
Experience in street dwelling	
Yes	124(56.9)
No	94(43.1)
Periods of living in shelter(mon.)	
≤ 12	84(38.5)
> 13	134(61.5)
Contact with family	
Yes	158(72.5)
No	60(27.5)

2. 실직노숙자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희망 정도

〈표 2〉에서와 같이, 실직노숙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23.72점, 표준편차 3.78점이었으며, 우울 정도는 평균 24.41점, 표준편차 10.09점으로 나타났다. 희망 정도는 평균 124.72점, 표준편차 23.03점이었다.

〈Table 2〉 Self-esteem, Depression, and Hope scores
(N = 218)

	Mean	SD	Min	Max
Self-esteem	23.72	3.78	13.00	35.00
Depression	24.41	10.09	0.00	49.00
Hope	124.72	23.03	72.00	189.00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점수인 평균 23.72점은 Kyungi-do Support Center for the Homeless(2000)에서 보고한 자아존중감 점수인 평균 21.42점보다 높은 편이나, 미국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Tollett과 Tomas(1995)가 보고한 노숙자의 자아존중감 점수인 평균 24.15점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같은 척도를 이용하여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Kim과 Sohng(1991)의 연구에서는 평균 35.05점이었고, 절단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1997)의 연구에서는 평균 26.02점이었으며,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k(1997)의 연구에서는 평균 33.07점이었다. 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Kang(199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점수가 평균 26.70점이었다. 이를 비교해 볼 때 노숙자의 자아존중감이 만성 질환자나 신체상의 변화가 있는 대상자, 정신질환자보다 더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Hertzberg(1992), Sumerin(1995), Kwok과 Chan(1996), Flynn(1997), Morris(1998)의 연구에서 노숙자의 자아존중감이 매우 저하되어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점수인 평균 24.41점은, Tollett과 Tomas(1995)가 보고한 노숙자의 우울 점수인 평균 25.40점보다 낮았으며, 또한 Beck(1967)의 우울 척도에서 24점 이상이면 심한 우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임을 감안할 때, 우울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Hertzberg(1992), Sumerin(1995), Dancy(1996), Fitcher 등(1996), Kwok과 Chan(1996), Flynn(1997) 등이 노숙자가 노숙 상태

와 관련된 손상 및 상실로 인해 심각한 우울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같은 척도를 이용하여 Kyungi-do Support Center for the Homeless(2000)에서 보고한 노숙자의 우울 점수는 평균 17.73으로 본 연구에서의 우울 점수보다 낮았으나, 이 역시 노숙자가 중간 정도의 우울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서울시 노숙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1998)의 연구에서는 노숙자의 우울증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3배정도 높고, 노숙기간이 3개월씩 증가함에 따라 우울의 위험도가 1.2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지역의 쉼터에 있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한 Ahn(1999)의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높았음을 볼 때, 노숙자 집단에서 우울이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희망 점수인 평균 124.74점은, 미국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Tollett과 Tomas(1995)의 연구에서 같은 척도를 사용한 희망 점수가 138.55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 노숙자의 희망 점수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Choi(1993)의 연구에서는 희망 점수가 평균 140.45점이었고,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k(1997)의 연구에서는 평균 132.87점이었음과 비교해 볼 때, 실직노숙자의 희망 점수가 만성 질환자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auman(1993), Hearth(1996)의 연구에서 노숙자가 희망의 상실 증상과 절망감을 나타낸다고 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실직노숙자의 자아존중감과 희망 점수가 낮고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실직노숙자가 실패와 무력감, 사회적 고립과 소외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가치감을 느끼게 되어 우울과 절망감, 희망의 상실 증상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

〈표 3〉에서와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결혼상태 및 가족과의 연락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 상태별 자아존중감 정도는 배우자가 있는 군이 평균 25.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이혼 또는 사별한 군이 평균 23.29점, 미혼인 군이 평균 23.08점의 순이었고, 이것을 Duncan 검정을 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군이 미혼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연락을 하는 군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25.13점으로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 군의 평균인 23.1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노숙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는 성인의 자아존중감은 신체적 건강 및 기능 상태, 결혼 상태, 중요한 타인 및 지지 체계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Rogenberg(1973)의 보고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령과 종교, 교육 정도, 월수입, 거리노숙 경험, 쉼터 거주 기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특히 쉼터 거주 기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노숙이 만성화 될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저하된다고 한 Hertzberg(1992), Sumerin(1995), Flynn(1997) 등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

<표 4>에서와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는 연령과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

<Table 3> Self-esteem scores in accordance with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18)

Characteristics	Mean	SD	t or F	p	Duncan
Age					
30-39	25.26	3.03	2.52	.085	
40-49	23.43	3.91			
50-59	23.18	3.87			
Religion					
Yes	23.90	4.01	.73	.469	
No	23.38	3.31			
Education level					
Below Middle school	24.00	3.88	.55	.578	
High school	23.40	3.78			
College and above	24.29	3.75			
Marital status					
Married or Partnered	25.63	3.51	4.15	.018*	1)2, 3
Single	23.08	3.60			
Divorced, Widowed	23.29	3.82			
Monthly Income(ten thousand won)					
≤ 50	23.35	3.68	-1.52	.133	
51 - 100	24.56	3.92			
Experience in street dwelling					
Yes	23.98	3.39	-.80	.429	
No	23.38	4.26			
Periods of living in shelter(mon.)					
≤ 12	24.05	4.14	.68	.498	
> 13	23.52	3.56			
Contact with family					
Yes	25.13	3.74	2.43	.018*	
No	23.19	3.68			

* P<0.05

우울 정도는 40-49세인 군이 평균 26.0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0-59세인 군이 평균 25.85점, 30-39세인 군이 평균 18.65점의 순이었다. 이것을 Duncan 검정을 한 결과, 30에서 39세인 군이 40세 이상인 군에 비해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별 우울 정도는 이혼 또는 사별한 군이 평균 26.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인 군이 평균 25.03점, 배우자가 있는 군이 평균 18.96점의 순이었다. 이것을 Duncan 검정을 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군이 미혼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군보다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노숙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가족 접촉이 우울을 해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종교와 교육 정도, 월수입, 거리노숙 경험, 쉼터 거주 기간, 가족과의 연락 유무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특히 거리노숙 경험과 쉼터 거주 기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길거리에서 노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노숙 기간이 길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고 한 Gory, Ritchey와 Mullis(1990)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Table 4> Depression scores in accordance with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18)

Characteristics	Mean	SD	t or F	p	Duncan
Age					
30-39	18.65	9.68			
40-49	26.04	9.54	5.12	.008*	2, 3)1
50-59	25.85	9.96			
Religion					
Yes	24.96	10.45	.81	.418	
No	23.35	9.39			
Education level					
Below Middle school	22.26	12.41	1.32	.272	
High school	25.76	8.83			
College and above	23.00	10.57			
Marital status					
Married or Partnered	18.96	11.36	5.19	.007*	2, 3)1
Single	25.03	9.98			
Divorced, Widowed	26.78	8.47			
Monthly Income(ten thousand won)					
≤ 50	24.63	9.28	.30	.766	
51 - 100	23.94	11.81			
Experience in street dwelling					
Yes	25.00	10.44	-0.70	.483	
No	23.64	9.66			
Periods of living in shelter(mon.)					
≤ 12	25.02	11.27	.48	.634	
> 13	24.03	9.34			
Contact with family					
Yes	21.70	10.02	-1.74	.087	
No	25.44	9.98			

* P<0.05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 정도

<표 5>에서와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 정도는 가족과의 연락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과의 연락을 하는 군의 희망 정도는 평균 131.90점으로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 군의 평균인 121.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는 희망이 가족 지지 체계 및 가족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Miller와 Powers(1985)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외, 연령과 종교, 교육 정도, 결혼 상태, 월수입, 거

리노숙 경험, 쉼터 거주 기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쉼터 거주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노숙 기간이 길수록 희망의 상실 및 절망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Tollett과 Tomas (1995), Sumerin(1996), Flynn(1997) 등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쉼터 거주 기간별로 자아존중감과 우울, 희망 정도에 있어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는 매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Piliavin, Wright, Mare와 Westerfelt

<Table 5> Hope scores in accordance with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18)

Characteristics	Mean	SD	t or F	p
Age				
30-39	134.26	21.32		
40-49	120.85	22.18	2.76	.068
50-59	123.74	23.95		
Religion				
Yes	123.39	23.45	-0.85	.397
No	127.30	22.27		
Education level				
Below Middle school	125.00	23.36	.11	.893
High school	123.90	23.18		
College and above	126.54	23.18		
Marital status				
Married or Partnered	131.13	22.86	1.45	.239
Single	121.05	24.08		
Divorced, Widowed	124.56	21.90		
Monthly Income(ten thousand won)				
≤ 50	124.47	23.10	-0.17	.868
51 - 100	125.26	23.21		
Experience in street dwelling				
Yes	123.08	21.05	.83	.410
No	126.87	25.47		
Periods of living in shelter(mon.)				
≤ 12	126.83	22.20	.77	.444
> 13	123.39	23.60		
Contact with family				
Yes	131.90	22.53	2.05	.046*
No	121.99	22.76		

* P<0.05

(1996)의 연구에서, 쉼터에서의 노숙 기간이 길어지면 서 노숙자들은 생존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보를 확보하거나 서로간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노숙자로서의 정체성은 노숙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노숙의 만성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보고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숙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실직노숙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간호중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6. 자아존중감, 우울, 희망간의 상관관계

〈표 6〉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희망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희망 정도가 높음을 나타냈다($r = .61, p = .001$). 자아존중감과 우울($r = -.64, p = .001$), 희망과 우울($r = .63, p = .001$)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자아존중감과 희망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Hope (N = 218)

	Self-esteem	Depression	Hope
Self-esteem	1.000		
Depression	-.64 ($p = .001$)	1.000	
Hope	.61 ($p = .001$)	-.63 ($p = .001$)	1.000

이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Tollett과 Tomas(199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손상이 우울과 희망의 상실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k(1997)과 Kim, M. S. (1999)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희망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절단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1997)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우울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직노숙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희망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들과 일반적 특성간의 관계 및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실직노숙자들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높이는 간호중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S시의 2개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실직노숙자 218명이었고, 1차 자료 수집 기간은 2000년 4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였고, 2차 자료 수집 기간은 2001년 3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는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각 변수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와의 관계는 t-test와 ANOVA, Duncan 검정을 하였고,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직노숙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23.72점, 우울 정도는 평균 24.41점, 희망 정도는 평균 124.72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연령과 결혼상태, 가족과의 연락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 자아존중감 정도는 30-39세인 군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40-49세인 군, 50-59세인 군의 순이었다. 결혼상태별 자아존중감 정도는 배우자가 있는 군이 미혼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을 하는 군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연락하지 않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는 연령과 결혼상태, 가족과의 연락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 우울 정도는 30에서 39세인 군이 40세 이상인 군에 비해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상태별 우울 정도는 배우자가 있는 군이 미혼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군보다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을 하는 군의 우울 정도가 연락하지 않는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 정도는 가족과의 연락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족과의 연락을

하는 군의 희망 정도가 연락하지 않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5) 자아존중감과 희망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희망 정도가 높았다($r=.61$, $p=.001$). 자아존중감과 우울($r=-.64$, $p=.001$), 희망과 우울($r=.63$, $p=.001$)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자아존중감과 희망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직노숙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문헌적 뒷받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실직노숙자들의 자아존중감과 희망 정도를 향상시키고, 우울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노숙의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

- Ahn, J. H. (1999). *Epidemiologic study on mental disorders in urban homeless people*. Doctoral Dissertation, The Ulsan University of Korea.
-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1998). *A report investigation on health state of the homeless*.
- Bachrach, L. L. (1992). What we know about homelessness among mentally ill persons : an analytical review and commentary. In : Lam, H. R., Bachrach, L. L., Kass, F. I., editors. *Treating the homeless mentally ill*. Washin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ress, 13-40.
- Baumann, S. (1993). The meaning of being homeless :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7(1), 59-73.
- Beck, A. T. (1967). *Depression :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 Harper and Row, New York.
- Choi, E. S. (1993). *Relation of uncertainty level in illness, coping style, and hope in cancer patient*. Master Dissertation,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Choi, W. R. (2000). *A study on the homeless careers*. Master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Dancy, B. L. and Barge, F. C. (1996). Homeless women's perceptions of their situation. *Journal of National Black Nurses Association*, 8(2), 13-22.
- Fitcher, M. M., Koniarczyk, M., Greifenhagen, A., Koegel, P., Quadflieg, N, Wittchen, H. U. and Wolz, J. (1996). Mental illness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homeless men in Munich, Germany. *European Archive Psychiatry in Clinical Neuroscience*, 246(4), 185-96.
- Flynn, L. (1997). Practices of homeless women : a causal model. *Nursing Research*, 46(2), 72-77.
- Gory, M. L., Ritchey, F. J., and Mullis, J. (1990). Depression among the homel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87-101.
- Han, H. M., Yeom, T. J., Shin, Y. W., Kim, G. H., Yun, D. G., J대ng, K. J. (1986). The Standardization study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s*, 25(3), 487-500.
- Hearth, K. A. (1996). Hope from the perspective of homeless famili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4, 743-753, 1996.
- Hertzberg, E. L. (1992). The Homeless in the United States : condition, typology and intervent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35, 149-161.
- Jeon, B. J. (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The Yonsei Journal*, 11, 109-129.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 Jo, D. W. (2001). *Psychological state of the homeless resident in homeless shelters*.

- Master Dissertation,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Kang, M. J. (1998). *The effects of therapeutic recreation therapy on psychiatric patient's self-esteem and depression*. Master Dissertati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Kim, H. K. (1997). *A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ocial support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amputees*. Master Dissertation, The Korea University of Korea.
- Kim, H. M. (2000). *The effect of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self-efficacy, self-esteem, depression, and hope of the homeless*. Doctoral Dissertation,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Kim, H. S. (1999).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sleeping rough duration of residents at homeless shelters*. Master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 Kim, M. J., Sohng, K. Y. (1991). The effect of supportive nursing care on the quality of life and self-esteem of persons with rheumatoid arthrit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1(3), 323-338.
- Kim, M. S. (1999). *The effect of the rational emotive therapy on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patient with spinal cord injury*. Master Dissertation,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Kwok, J. and Chan, R. (1996). Street sleeping in Hong Kong. *International Social Work*, 41(4), 471-483.
- Kyungi-do Support Center for the Homeless (2000). *A report investigation on mental health state of residents at homeless shelters*.
- Lam, J. A., and Rosenheck, R. (1998). The effect of victimization on clinical outcomes of homeless person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 49(5), 678-83.
- Lee, M. J. (1992). *The study on relationship of family support and hope perceived by hemodialysis patient*. Master Dissertati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 Lee, Y. H. (1998). *A study on present situation of and preventive measures of the unemployed homeless in Korea*. Master Dissertation, The Hanyang University of Korea.
- Miller, J. F. and Powers, M. J. (1985). Inspiring hop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23-25.
- Morris, J. M. (1998). Affiliation, gender, and parental status among homeless pers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2), 141-156.
- Park, M. S. (1997). *A study of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hope of the patient with spinal cord injury*. Master Dissertation, The Korea University of Korea.
- Piliavin, I., Wright, B. R. E., Mare, R. D., and Westerfelt, A. H. (1996). Exits from and returns to homelessness. *Social Service Review*, 70, 33-57.
- Rosenberg, M. (1970). Which Significant Others?. *American Behavior Scientists*, 16, 829-860.
- Son, J. H. (2000). *A study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homeless in homeless shelters*. Master Dissertation, The Kon-Kuk University of Korea.
- Sumerin, J. R. (1995). Adaptation to homelessness : self-actualization, loneliness, and depression in street homeless men. *Psychological Report*, 77(1), 295-314.
- United States Congress. (1987). *The 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 100-177.
- Tollett, H. and Thomas, H. P. (1995). A theory-based nursing intervention to instill hope in homeless veterans. *Advanced Nursing Science*, 18(2), 76-90.
- Wright, T. (2000). Resisting homelessness : global, national, and local solutions. *Contemporary Sociology*, 29(1), 27-43.
- Yun, J. A. (2000). *The Lived experience of homeless women : using Parse's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ology*. Doctoral Dissertation, The Hanyang University of Korea.

- Abstract -

A Study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Hope of Unemployed Homeless

Kim, Hyun Mi · Choi, Yeon Hee**

Purpose :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the psychosocial adaptation of unemployed homeless by examining the degree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hope, and the relation of these variables. **Method** : The subjects were a volunteer sample of 218 unemployed homeless residing at 2 shelters in Seoul and Suwon, Korea.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Rosenberg's self-esteem scale, Beck's depression inventory, and Miller and Powers's hope scale. Using the SPSS program, the data were analysed by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Duncan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 1) The degree of self-esteem is, on average, 23.72 points, depression is 24.41 points, and hope is 124.72 points. 2) The degree of self-esteem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y age, marital status, and contact with family. 3) The degree of depression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y age, marital status, and contact with family. 4) The degree of hope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y contact with family. 5)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of self-esteem and hope, while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hope and depression. **Conclusion** : 1) The study identifie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homeless. 2) It is required not only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o improve the degree of self-esteem and hope, and alleviate depression but also to testify the effect of the program. 3) It is neede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o prevent chronic homelessness.

Key words : Unemployed homeless, Self-esteem, Depression, Hope

* Kyungsan University, Dept. of Nursing